

올 대규모 횡령사건 4건... 부실 '내부통제 시스템' 도마위

금융 이슈리포트

직원 횡령사건

작년 금융회사 내 금전비리 40건
금융사고 금액 총 179.5억 달해

우리금융, 국내 첫 KYC제도 시행
내부통제관리위 설치 등에도 '허술'
금감원, 자체감사 요구제도 요구



서울 우리은행 본점.

올해만 해도 회삿돈을 대규모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한 해에 확인된 금융회사 내부의 금전적인 비리 사고는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까지 발생하며, 국내 기업의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보험, 자산운용,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 금액은 총 179억 5000만원(40건)에 달했다.

◆임직원 26% 횡령 경험있어

대형 횡령 사건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로 발생했다. 국내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담당자 4명 중 1명이 사내에서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나 부정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회계 감사와 디지털 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총 5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6%가 회사 내에서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나 회계 부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해당 응답률이 36%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회계 부정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자본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횡령 및 부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내부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내부통제시스템 '허술'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사내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수 년 간 진행된 내부 횡령 사건도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금융은 2019년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고객알기(KYC)제도를 시행했다. 또 2020년 3월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 사내 내부통제관리위원회에는 사외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1명,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상용 사외이사 위원장을 맡았으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김흥태 비상임이사 위원회 멤버로 꾸려졌다.

우리금융이 올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내부통제감사보수로 2019년 2억5500만원, 2020년 3억5000만원 등 총 8억7900만원을 집행했다. 2019년에는 안전회계법인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삼일회계법인인 감사를 맡았다.

안전회계법인인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인 2020년부터 올해

까지 3년간 외부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모두 '적정' 감사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합격점'을 부여했다.

◆금감원 '자체감사 요구제도' 시행

금감원이 은행권에 자율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체감사 요구제도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면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부터 자체감사 요구제도 시범 시행을 시작했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단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다른 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행할 수 있지만 각종 감사에서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 통장까지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우리銀, 직원이 600억 횡령... ESG경영 타격

본점 차장급 직원 6년간 614억 끌려
전반적 시스템 전면 재검토 불가피
ESG등급 하향, M&A 등 차질 우려

6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은행이 강조해온 ESG(환경·사회적·기업지배구조) 경영도 타격을 입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614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금융권 횡령액은 많아야 수 십억원이었다. 지난해 A은행과 B은행 직원의 횡령 혐의 금액도 20억원과 30억원대였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수시 검사에 착수해 빠른 속도로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우리은행 횡령은 2012~2018년 등 6년간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금감원으로부터 전혀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직원이 6년에 걸쳐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금융당국과 은행 측이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 중 최초로 은행을 포함한 그룹차원의 내부통제를 관리하는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내부통제를 통해 ESG경영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사회적 책임이나 내부통제 등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ESG 부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전면

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이원덕 행장이 취임 직후 고객 중심과 현장 경영을 강조해 사외이사로 ESG 전문가인 송수영 이사를 선임했지만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당국에 제재를 받았지만 대규모 횡령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경영진의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만약 경영진이 징계를 받을 경우 ESG등급 하향, 인수합병(M&A) 등 향후 ESG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1월 20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지배구조(G) 분야 등급을 B에서 D로 하향하고 ESG 통합 등급도 B에서 C로 낮췄다. 등급이 하락할 경우 사업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객들의 신뢰가 하락하게 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신한은행, 차세대 CEO '신한 MIP' 입교

13기 총 28명... 7개월간 커리큘럼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 거대 기업의 차세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신한 MIP(Management Innovation Program for NEXT CEO)' 13기 입교식을 진행했다.

'신한 MIP'는 중소·중견기업 2세 경영인을 대상으로 인적네트워크와 경영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 1기 25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2기까지 총 404명의 회원이 수료했다.

MIP 13기 28명은 입교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경영·경제·디지털·리더쉽·글로벌 혁신기업 등 관련분야의 명사 초청 강연과 회계사·ESG·인사조직 전문가가 진행하는 사례 위주의 커리큘럼을 이수할 예정이다.

이번 입교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입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

'삼프로TV' 김동환대표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상생의 동반자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조각투자, 허위·과장광고 주의하세요”

금감원 Q&A

가치평가 어렵고 가격변동성도 커

Q. 요즘 주변에서 조각투자를 많이 하던데, 조각투자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A.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해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

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째,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

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큼니다. 조각투자의 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IBK기업은행, 경영진 참여 '확대경영회의'

현안 점검, 기후변화 지원방안 논의

IBK기업은행은 지난 4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총주 동량면에 위치한 IBK충주연수원에서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본부장급 이상 모든 경영진이 참여하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됐다. IBK충주연수원에서 주요 경영현안을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에 대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

의했다.

윤행장은 행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윤행장은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을 통해 기업은행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혁신경영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